

“연기법 수행은 선수행법인 심법과 회통”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지음 | 김영사 펴냄 | 2만8천원



국내에서도 참선 수행, 염불 수행, 요가 수행 등 여러 수행법을 통해 영원한 자유인 깨달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백창우 저자는 스스로 깨달음의 공부과정을 통해 겪었던 것을 정리해 “이 공부를 하는 도반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안내서를 쓰고 싶었다.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중년의 늦은 나이에 수행을 시작한 저자는 공부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깨달음의 답을 얻고자 무척 애를 태우고 노력했지만 명확한 지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경전에 의지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 경전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쉽고 분명하게 공부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원력이 생겼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후학을 위해서 진정한 지침서를 남기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깨달음은 소수만이 향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깨달음이 대중화돼야 나와 나의 구별조차 없어져 인류가 진정 평화로 왕립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영성시대에 모두가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책

이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했다.

이 책은 영원한 자유를 찾기 위한 수행의 시작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계, 공부 점검, 깨달음 이후의 세계까지 담고 있다.

저자는 공부 하면서 생겨나는 의문들을 해소하고, 수행 중에 열길로 쉴 수 있는 가르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이 공부에 갓 입문한 사람은 바른 안목이 없기에,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럴 듯하게 여겨지는 가르침에 속기 쉽다. 우리의 의식중이 다양하고 각각의 심층 의식이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드러나는 심층의식 영역을 궁극이라고 잘못 알고 쉽다. 저자는 “공부가 깊어감에 따라, 그만큼의 의식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궁극의 공부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공부인은 중간과정을 붙잡고 공부가 끝난 것으로 착각한다.(...)그러하여 기이한 심리적 현상들에 현혹되기 쉽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서도 이야기하지만, 초심자가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설명했기에 초심자들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수행이란 무엇인지부터, 연기법을 통한 깨달음, 연기법과 심법의 회통, 무아와 불성을 넘어 공부인의 자세와 공부의 과정, 공부 중 발생하는 장애, 수행 방법,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 이후의 세계까지, 깨달음 공부의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담고 있다.

또 그 설명 또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쉽게 풀이했다. 깨달음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든 많이 배운 사람에게든 공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연기법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연기법 수행은 “여타 수많은 수행과 차별된다. 굳이 힘들게 다리를 꼬고 용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할 줄 알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행”이라며 “한 알의 사과와 사과나무만 있어서는 결코 열릴 수 없다. 사과나무는 물론이고 공기, 태양의 에너지, 땅속의 영양소, 농부의 노력 등 많은 요소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결국 한 알의

저자 중년 늦은 나이에 수행 시작 수행 방법, 경계, 점검 과정 소개 연기법 수행의 중요성 특히 강조

사과는 이러한 수많은 요소가 함께한 결과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과나무는 또한 수많은 요소가 함께한 산물이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요소가 함께한 결과이다. 이것을 더욱 외연을 넓히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사과 한 알에 작용하여 형성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기적 사유라는 것은 별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오관에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사유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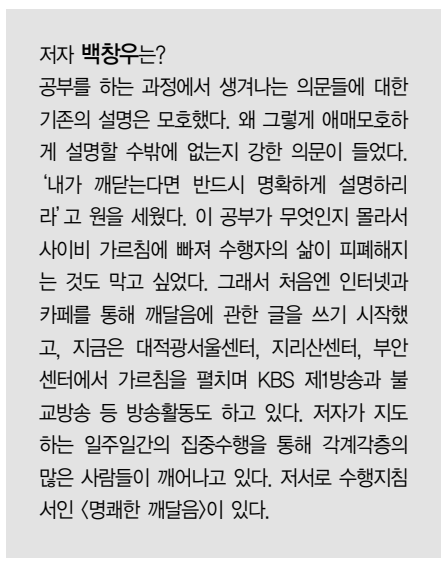
저자는 또한 이런 연기법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면 마침내 허공이라고 알고 있던 진공 속에서 일체의 존재가 묘하게 나타난다

고 전한다. 저자는 이런 연기법 수행은 선 수행법인 심법과 회통한다고 말한다. 존재는 공이고, 존재는 연기한 것이기 때문이며 존재는 공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은 특히 영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문명의 이기를 통해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이성의 한계가 초래한 부작용이다. 이제 이 영역을 포괄하여 우리의 본성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더 나아가 모두가 세상의 참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는 바로 건강한 깨달음의 길에 기존 수행법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행서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백창우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문들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모호했다.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내가 깨닫는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하리라'고 원을 세웠다. 이 공부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이버 가르침에 빠져 수행자의 삶이 파헤쳐지는 것도 막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엔 인터넷과 카페를 통해 깨달음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적광사출판, 지리산선터, 부안선터에서 가르침을 펼치며 KBS 제방송과 불교방송 등 방송활동도 하고 있다. 저자가 지도하는 일주일간의 집중수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저서로 수행지침서인 <명쾌한 깨달음>이 있다.

인식론과 논리학, 서양 전유물 ‘NO’ ... 일찍이 인도서 먼저 발달

불교인식론과 논리학

카초라 쇼류 외 지음 | 권서용 옮김 | 윤주사 펴냄 | 1만5천원



일반적으로 인식론과 논리학은 서양 철학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찍이 인도불교에서는 서양보다 더 고도의 인식론과 논리학이 발달했다. 서양논리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합리적 관점에서 인식과 논리를 탐구한다. 그런데 불교논리학에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입장에서 현실에 바탕한 인식과 논리를 추구한다. 이런 철학적 입장은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 전반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 상대성이론 등의 발견으로 불변의 실체를 전제했던 인식논리학의 결함을 인지하고 불교의 인식논리학이 지닌 놀라운 현실성과 합리성을 새삼 깨달아가고 있다. 이것이 지성계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불교가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교의 인식논리학은 우리의 인식, 특히 지각과 추리를 비판적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인식의 본질을 외부의 대상인식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인식이라 보기 때문에 결국 '인식논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자기인식, 곧 견성이며, 견성이 곧 성불이기 때문에 불교 인식논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곧 성불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인도 불교도에 의한 논리학적 탐구과정과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불교논리학을 체계화한 디그나가가 다르마키르티의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르는 불교논리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술과 그 뒤에 전개되는 찰나별 논증을 비롯한 불교논리학 특유의 이론 해설을 행하고 있다. 또한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진리론 언어철학이라는 다섯 개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불교논리학을 기술하고, 찰나별 논증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최신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색이다.

우선 제 1장 '불교논리학의 구조와 그 의미'에서는 불교논리학의 기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인도의 철학체계로서 인도 불교를 파악하고 나서, 디그나가에 이르기까지 인도논리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이라는 세계의 관점에서 불교논리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논리학의 불교로서의 존재의의를 논한

다. 제3장 '인식론-지각의 이론과 그 전개'에서는 불교인식론의 중심에 있는 직접지각을 제시하고, 그 정의 종류 대상 개념의 차이화 등의 관점에서 다르마키르티 이후의 전개도 시야에 넣고서 지각론의 기본적 구조를 제시한다.

'진리론-프라마나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5장은 흥미롭다. 불교인식론의 중심 개념, 바른 인식이기도 하며 그것을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한 프라마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론을 논한다. 디그나가가 프라마나관을 개설하고 나서 다르마키르티를 중심으로 최후기의 불교논리학자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를 밝히고 있다.

제6장 '언어철학-아포하 이론'에서는 디그나가가 창설한 아포하 이론의 전개과정을 다른 학파에 속하는 쿠마리나라 자안타 등의 비판적 눈을 통해 개관함으로써 불교논리학의 언어철학적 고찰을 밝히고 있다. 제7장 '전지자 증명 윤회의 증명'에서는 다르마키르티가 행한 몇 개의 불교교리의 증명 가운데 바다의 전지자 증명과 윤회의 증명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상사적 전개를 간명하게 제시한다.

인도불교 논리학적 구체화과정 제시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다” 주장

마지막 제8장 '찰나별 논증-시간실체에 대한 도전'에서는 다르마키르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의적 증명인 찰나별 논증을 제시하고, 이를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시간실체(time substance)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여 비교철학적 고찰을 가한다.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잘 드러나듯이, 불교는 종교이자 철학이다. 철학에 기반하지 않는 종교는 맹목으로 흐를 수 있으며, 종교에 근거하지 않는 철학은 허무로 흐를 수 있다. 맹목적 종교, 허무적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더욱 맹목적으로, 허무적으로 몰아간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현실에서 울타리 없는 철학과 종교의 융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불교 인식논리학은 맹목과 허무로 흐를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 인식논리학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 이 책은 최적의 안내서 역할을 해준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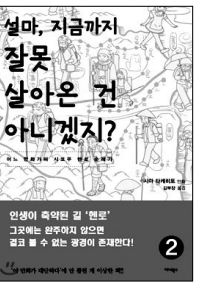
▲저자 카초라 쇼류(加草 昭流)는? 1944년 시가현에서 출생했다.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 수석과정과 토론토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류코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인도논리학에서 변증관계의 생성과 발전> (히로시마대학대학부기요) 제46권, 특집호1) 등 다수가 있고, 역서로 <붓다의 생애> (법학경2) <깨달음으로의 편력> 등이 있다.

“왜 세상은 꿈만 쫓고 꿈을 포기하란 말은 안 할까?”

설마,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니겠지 1, 2

시마 타케히토 지음 | 에니복스 펴냄 | 각 8500원



“겉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독특한 ‘겉’이 있다. 일본 시코쿠 지방의 불교 순례길 ‘헨로’가 바로 그것이다.

‘헨로’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진언종의 창시자 코보 대사가 수행을 위해 시코쿠의 88개 사찰을 순례한 것이 그 시초다. 과거에는 유배자나 도망자를 차마 죽이지 못해 죽을 때까지 걷게 하는 ‘죽음의 여행길’이었다가 현대에 이르러 관광화가 진행되어 자아 찾거나 소원을 빌기 위한 도보 여행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관광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길은 전통적으로 ‘수행길’이며, 따라서 단순한 건강을 위해 걷기 보다는 무언가 마음속 짐을 안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모여드는 길로 통한다. 이 작

품은 저자가 헨로길을 직접 걸으며 체험한 것을 토대로 그린 픽션이다.

주인공 ‘안 팔리는 중년 에로만화가’는 담당 편집자에게 “선생 작품은 그 누구에게도 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실의

‘헨로길’ 체험 토대로 그린 픽션 헨로, 1200년전 코보대사 순례 시초 인생좌절 맞본이에게 색다른 조언

에 빠진다. 주변 동료들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자신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상 속 어느날, 사람을 상해하고 시코쿠 헨로로 숨어들어간 한 화가가 그곳에서 신분을 드러

내며 작품 활동을 하던 중 불심전문에 걸려 달아났다는 뉴스를 보며 주인공은 의아해 한다.

‘헨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같은 창작자로서의 호기심과 주인공이 처한 비루한 현실은 결국 발길을 시코쿠로 향하게 한다. 그 화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현실적인 희망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헨로길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의 고민을 안고 걷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걷는지, 또한 그는 어떠한지... 이 이야기는 그 기록에 대한 편린이다. 헨로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들은 인생에 좌절해본 이들에게 색다른 조언이 되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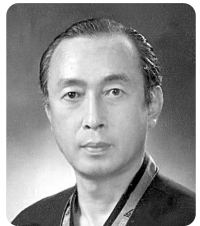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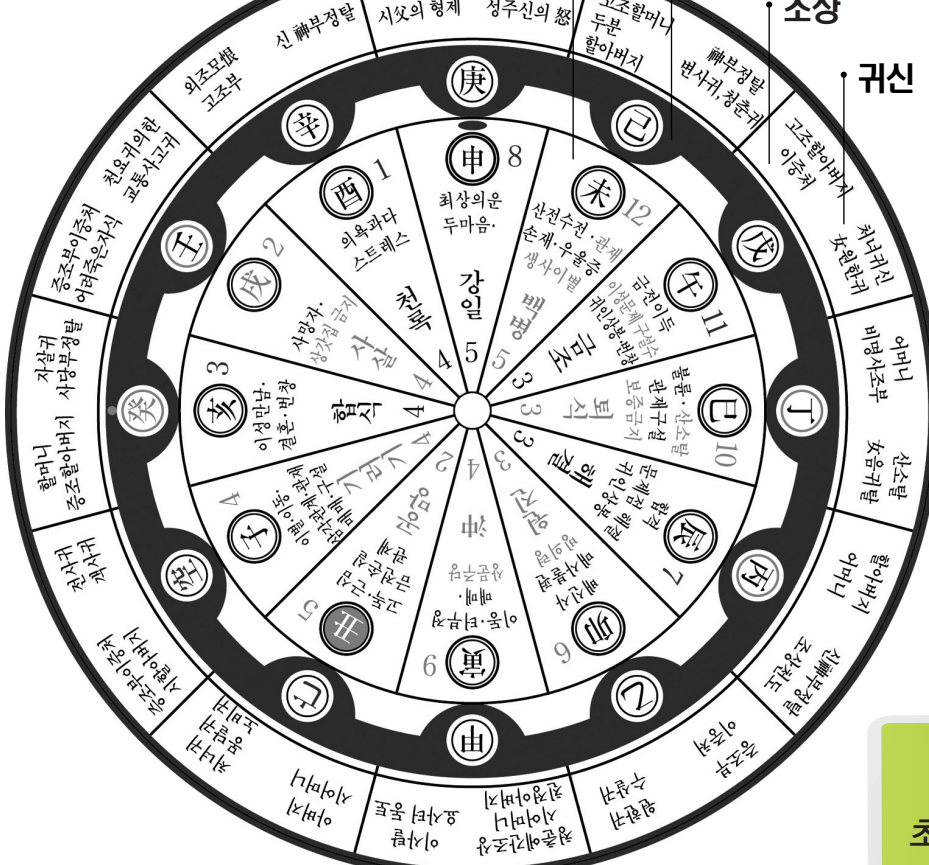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문판, 내 손안의 귀장술입니다(극비 도공술 추가 강의)

관장 : 이준혁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겠습니까?

-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 4)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